

롯데백화점, '모피 역사존 특가전' 진행

롯데백화점이 7~9일 본점에서 '모피 역사존 특가전'을 연다. 진도 모피·국제모피·근화모피 등 총 6개 브랜드가 참여, 60억원어치 물량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신상품이 전체 행사 물량의 40% 이상을 차지해 신상 모피 상품을 가장 먼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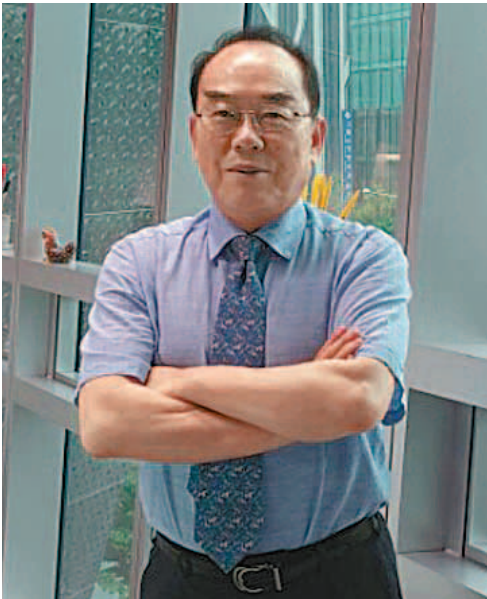


“펫푸드, 사람이 먹는 식재료만 썼어요”

비즈 & 피플

하림펫푸드 양재현 대표이사

충남 공주시에 신설된 하림 펫푸드 전용공장 지붕 위에는 개와 고양이 형상이 있다. 개 이름은 ‘해피(Happy)’, 고양이 이름은 ‘댄스(Dance)’. 개와 고양이가 먹이를 기대하며 마치 춤을 추듯 뛰고, 꼬리를 흔들고, 공공거리는 몸짓을 뜻하는 ‘해피댄스’다. 펫푸드 전용공장 해피댄스 스튜디오를 올해 신설 가동하고, 100% 휴먼그레이드 이드 펫푸드 ‘더:리얼’을 론칭한 하림펫푸드 양재현 대표이사를 만났다. 양재현 대표이사는 수입 사료가 국내 사료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품질,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넘쳐 있었다.



양재현 대표이사는 “하림펫푸드는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을 내 반려견에게 줄 수 없다’라는 신념을 철저히 고수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내세워 반려동물의 식문화를 바꾸고자 한다”며, “국내 최초로 100% 휴먼그레이드인 ‘더:리얼’을 출시해 첫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하림펫푸드

100% 휴먼그레이드 제품 ‘더:리얼’ 론칭
품질·안전 자신 “먹어 보세요, 괜찮아요”
3년내 매출 600억원, 점유율 15% 목표

●반려동물 행복을 디자인하는 공장, ‘해피댄스 스튜디오’

-펫푸드 전용공장 이름이 특이한데,
“공모를 통해 개 이름을 ‘Happy’, 고양이 이름을 ‘Dance’라고 지었다. 업계 용어로 ‘Happy Dance’란 말이 있다.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가족(펫)의 행복한 순간을 디자인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 공장을 ‘해피댄스튜디오(Happy Dance Studio)’로 부르기로 했다. 국내 유일의 휴먼 그레이드 펫푸드 전용 공장이다. 대지면적 2만8595㎡에 총 사업비 400억원을 들인, 펫푸드 단일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의 생산 시설이다.”
-해피댄스튜디오의 특징점은.
“생고기 첨가가 가능한 ‘익스트루더’ 시설로 반려견에게 고품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 가정에서 굽는 것과 같은 방식의 오븐 설비를 갖췄다. 공기이송장치를 통해 원료 혼합과 오염을 방지한다. 해피댄스튜디오 내의 모든 원재료는 포장지에 담기는 순간까지 공기이송장치를 통해서만 이동한다. 신선 유지를 위한 공기순환시스템, 2700개의 독립된 팔레트, 85개의 저장빈으로 이뤄진 보관실을 갖춰 식품 수준으로 철저히 보관 관리한다.”
-추적관리 시스템을 갖췄다는데.
“사람이 먹는 식품을 생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위생 관리와 엄격한 기준을 거쳐 모든 제

품을 생산한다. 원료가 입고되면 개별 추적시스템을 부착해 추후 재검사가 가능하다. 제품 출고 후 12개월간 원료와 제품 샘플을 소량 보관한다. 혹시라도 고객 불만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해당 사료 성분을 재검사해 문제를 철저히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작은 포장단위인 내포장에 시리얼 번호를 표기해 추적 가능하다.”

●100% 휴먼그레이드 펫푸드의 자부심, ‘더:리얼’

-‘더:리얼’ 브랜드 제품 특징과 라인업은.
“100%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만으로 만든 100% 휴먼그레이드 건식 타입의 펫푸드로 육분이 아닌 생고기 40%를 함유하고 있다. 대두, 옥수수 같은 GMO 작물과 글루텐 등 반려동물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합성보존료와 향미제가 없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하도록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연어 등 신선한 생고기 4종으로 만든다. 이번에 출시한 바삭바삭한 크런치와 원물 그대로의 간식인 저카라인을 시작으로 부드러운 식감의 오븐 베이킹 라인을 9월에 추가할 예정이다. 쌀과자, 습식 그리고 냉장라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판매되던 펫 관련 하림 제품은 어떻게 되나.
“하림그룹 CI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하림펫푸드’만 ‘하림’ 로고를 사용한다.”
-‘더:리얼’ 브랜드만의 경쟁력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오직 품질뿐이라고 생각한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사료가 없다고 느끼고,

합성보존료 등의 첨가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반려 동물 가족에게 새로운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한 이유는.

“유통기간을 축소하고 유통마진을 줄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함이다. 온라인 커머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직거래할 계획이다.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고객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다.”

●자연이 주는 신선함·완전함·순수함, ‘하림펫푸드’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목표는.

“3년 안에 600억 매출 달성, 시장 점유율 15% 획득이 목표다.”

-‘해피댄스튜디오’와 ‘더:리얼’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부딪친 애로점이나 보람이 있다면.

“100% 휴먼그레이드 제품 원재료는 5배에서 100배까지 비싸다. 회사내부에서조차 반발에 부딪혔다. 몇몇 원료들은 식품등급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럽이나 미국 식품원료 소싱 업체를 찾아야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반대를 무릅쓰고 100% 식품원료에 생고기 40%, 방부제 무첨가, 무항제로 생산했다. 테스트 결과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반려견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격려해 주는 이들이 많아 보람을 느낀다.”

-펫푸드를 직접 먹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이유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자부심이다. 회의할 때 직접 개발한 제품을 수시로 먹고 있다. 100% 사람이 먹는 식재료로 만들어서 아무 부담없이 먹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 스스로도 위생적이고 신선한 제품 생산에 더욱 주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림그룹의 식품 비즈니스 원칙이 있다는데.
“소비자들은 자연식품을 원하고 있다. 자연식품의 본질적인 가치는 식소재의 신선함에 있다. 그래서 모든 식품에서 자연의 신선함을 담고자 했다. 자연이 주는 신선함과 완전함, 순수함을 고객의 식탁에 전달하는 것, 이러한 하림의 식품 철학을 ‘네이처 센세이션(Nature’s Sensation)’이라고 이름 지었다. 하림펫푸드도 이러한 식품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주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양재현 대표이사

▲1949년 1월30일생 ▲진주고 졸업 ▲부산대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락희화학(LG화학 전신) 입사 ▲생산·기획·상품개발 팀장 역임 ▲기술개발 본부장 ▲영양담당 상무 ▲LG 생활건강 생활용품 사업부장 역임 ▲Avant Korea 대표이사 역임 ▲하림펫푸드 대표이사(현재)

경제현장.jpg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우산 빌리세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일 전국 275개 직영점에서 ‘빨간우산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장마철 갑작스런 폭우에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함이다. 슈퍼마켓 업계에서 우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으로, 장마철뿐 아니라 평소에도 소나기를 피하거나 양산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모델이 2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목동점에서 대여용 우산을 선보이고 있다.

정영록 기자·사진제공 | 홈플러스

“갤럭시노트 FE 69만9600원” 7일 출시

‘갤S8’과 동일한 사용자경험 적용
배터리용량 줄이고 안전 검사 강화



배터리 불량으로 지난해 ‘조기단종’이란 굴욕을 겪은 ‘갤럭시노트7’이 리퍼비시(리퍼)로 돌아온다. 최신 프리미엄 제품과 비교해도 여전히 손색없는 사양을 갖췄다는 점에서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 팬 에디션(FE·사진)’을 7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노트7 미개봉 제품과 미사용 부품을 활용해 새롭게 제조했다. 관심을 모은 가격은 69만9600원. 삼성전자는 국내 시장에 40만대 한정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홍채 인식, IP68등급 방수·방진 등 기능과 외관 디자인은 계승했다. 그러면 최신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8’과 동일한

사용자경험(UX)을 적용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다. 갤럭시S8에 최초로 적용된 지능형 인터페이스 ‘빅스비’의 4가지 기능 중 ‘빅스비 홈’과 ‘빅스비 리마인더’도 적용했다. 또 문제가 됐던 배터리 용량은 3500mAh에서 3200mAh로 줄었다. 아울러 다중 안전 설계와 8포인트 배터리 안전성 검사도 적용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설명이다.

갤럭시노트7 리퍼가 가세하면서 하반기 전략 신제품 공개 전 기존 프리미엄 제품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갤럭시S8과 ‘G6’의 용량과 색상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르노삼성 5개 차종, 배출가스 결함 리콜

SM5·SM3·QM6·QM5 등 6만2000대

환경부는 2일 르노삼성자동차의 SM5, QM6 등 5개 차종 6만2000대에서 수온센서와 산소센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수온센서 및 산소센서에 이상이 생기면 경고등이 오작동할 수 있으며, 엔진제어 기능이나 배기가스 저감장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르노삼성은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제작과정상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생산된 SM5, SM3, QM5, SM5 LPLi 등 4개 차종 4만9647대는 수온센서에서, 2016년 7월18일부터 2016년 12월9일까지 생산된 QM6 차종 1만2353대는 산소센서 문제가 발생했다. 르노삼성은 해당 차종의 수온센서와 산소센서를 무상으로 교체해줄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3일부터 전국 르노삼성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을 방문하면 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센추리를 구매해야하는 크나큰 이유!

1. 전기세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2. 냉방·난방 평수가 똑같은지??
3.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회사인지??
4.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5.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2017년 빅히트 업소용 이동식에어컨 (가정용 아님)

- 편리함 이동: 에어컨 부속과 인버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전기능 리모컨 작동: 24시간 원격으로 에어컨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예약 타이머: 24시간에 걸쳐 자동적으로 작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강력 냉방: 고급 냉매를 사용하여 냉방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 제습 및 송풍기능: 고압 송풍기능을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조절합니다.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